한국디자인학회 소사(小史) 1 - 태동과 재발족

The Brief History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

김명석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Kim, Myung-Suk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 Key words: Deign History, KSDS, JSSD, CID, ASSD, DRS

1. 머리말

한국디자인학회(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KSDS/ 이하 학회로 칭함)가 재발족 된지 10년이 지났다. 재발족 당시 100여명으로 시작된 본 학회가 2004년 10월 현재, 회원수 30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학회로 성장하기 까지는 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취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시작되어 진행되며 또 흘러간다. 학회가 처음 시작된 1978년 10월부터 헤아리면 26년이 경과되었지만, 본격적인 국내유일의 통합된 디자인학회로 재출범한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며 그간 적지 않은 역사적 흔적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간의 흔적을 상세히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잊혀지기 전에 개략적 사실만이라도 기록해 두어야할 것 같아 이번 재발족 10주년 학술대회에 즈음하여 학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위주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물, 학술발표대회, 학술논문집간행, 국제학술교류(아시아디자인학회)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기록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다.

2. 학회의 태동(1978-1994)

우리 인간은 출생의 뿌리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학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태동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한국디자인학회'의 명칭으로 창립했던 1978년 10월28일을 창립일로 기록하고자 한다. 창립총회는 당시, 서울 연건동에 위치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초대회장에 박대순 교수(한양대)가 선임되었고 회원은 한국디자이너협의회(Korea Designer's Council/KDC)회원으로 구성하였다. 당시 디자인이 학문적으로 정착된 시대가 아니어서 학술활동 기록은 미미하지만 통합된 학회로 재발족한 1994년 5월전까지 일곱 권의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는 당시 디자인분야가 미술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던 관념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학문분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회가 창립된 이후 10년이 지난 1988년 5월에는 필자의 발의로 순수한 디자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장파 학자들의 모임이 이루어 졌다. 그해 다섯 차례의 회동을 통해 기존 학회와의 관계정립과 범 한국적 통합디자인학회의 결성을 논의하였으며, 이 연구회에는 권영걸, 김명석, 김진평(작고), 명승수, 박영순, 우흥룡, 이건표, 이순종, 이재국 등이 참여했다. 그 후 이들은 민철홍, 박대순, 조영제, 한도룡 등 원로교수들을 방문하여 범 한국적인 통합디자인학회의 시대적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5년이 지난 1993년 2월 '한국디자인학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다시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199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학회 재발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준비위원은 김명석, 김재명, 김종기, 명승수, 민찬홍, 박영순, 송복희, 안상수, 우흥룡, 이건표, 이재국, 이헌국, 윤태호, 조재경, 지해천, 차임선, 한석우, 홍성수 등 18명 이었다.

3. 학회재발족과 그 후의 10년(1994-2004)

1) 제2대 김영기 회장(1994-1995)

디자인학연구회가 처음 모인 1988년 5월 이후 6년이 지나서야 범 한국적 통합디자인학회의 재발족을 위한 총회가 1994년 5월28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현 디자인진흥원) 강당에서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학회재발족을 위한 취지문을 선포하고 김영기 교수(이화여대)가 제2대 회장에 선출되어 한국디자인학회의 역사적인 재출범이 이루어졌다. 그 해 11월에는 이화여대에서 학회 재발족 이후 처음으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총3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회저널인 <디자인학연구>지에 총28편의 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되었다. 이 학술지부터는 안상수교수가 디자인 한 학회 심벌마크와 로고타잎 그리고 표지디자인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의 주요학회활동은 다음과 같다.

- 6월3일 홍익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개최, 논문 24편 발표
- 11월24일 KAIST에서 추계학술대회 개최, 논문39편 발표
- 2월과 7월 <디자인학연구>논문집 두 권 간행

이와 같이 재발족 직후, 두해에 걸쳐서는 학회활동의 정상화 및 학문적 위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되었다.

2) 제3대 오근재 회장(1996-1997)

제3대 회장으로는 홍익대학교의 오근재교수가 선출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논문의 양적,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많은 회원이 학회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였다. 특히 학술대회에는 회원연구발표 이외에 특별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가을대회의 특별심포지엄 '디자인용어 바로알고 바로쓰기'는 디자인분야의 용어정립을 위한 발제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97년 봄 학술대회는 한국심리학회 협찬으로 '디자인과 심리학'이라는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97년 봄에는 일본디자인학회(JSSD)의 미야자키 회장과 스기야마 부회장이 본 학회를 방문하여 학술교류를 제안해 왔다. 이에 본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가을에는 양국 학회사상 처음으로 국제디자인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제3대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96. 5월31일 국민대학교에서 봄 학술대회 개최. 31편 발표
  11월5일 서울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개최. 32편 발표
  2월,10월,12월 <디자인학연구>논문집 간행
- 97. 5월24일 연세대학교에서 봄학술대회 개최. 35편 발표
  10.17-19 KAIST에서 국제디자인학술대회 개최. 논문 157편 발표. 일본에서 105명 참가. 후에 이 대회는 제2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로 기록됨.
  5월과 8월 <디자인학연구>논문집 간행

3) 제4대 및 5대 김명석 회장(1998-2001)

제4대 회장으로는 KAIST의 김명석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5대까지 연임되었다. 이 시기에는 회원수의 급증과 국제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술대회를 지방소재대학으로 순회, 개최함으로서 학회활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저널을 연4회 간행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디자인학회 결성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 97년도 한일 디자인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는 다음해 타이완으로 이어졌으며, 제3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아시아디자인학회의 모습이 확실해지는 계기가 됐다. 제4대 및 5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98. 5월29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봄학술대회. 39편 발표
  11월14일 국민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48편 발표
  2월, 5월, 8월, 11월 <디자인학연구>논문집 간행
  10월 제3회 ADC 참가(타이완 타이쭝)
- 99. 5월28일 기술교육대학에서 봄학술대회. 39편 발표
  10월2일 동서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50편 발표
  2월, 5월, 8월, 11월<디자인학연구> 논문집 간행
- 00. 5월27일 조선대학교에서 봄학술대회. 49편 발표
  11월4일 경기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66편 발표
  2월,5월,8월,11월 <디자인학연구> 논문집 간행
- 01. 5월26일 숙명여대에서 봄학술대회. 76편 발표
  11월11-13일 서울대학교에서 제5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 개최주관(5th ADC 2001). 17개국에서 500여명 참가. 연구논문 200편 발표.
- 01. 2월,5월,8월,11월<디자인학연구>논문집 간행

4) 제6대 박영순 회장(2002-2003)

제6대 회장에는 연세대학교 박영순교수가 선출되었으며, 2002년 봄학술대회에는 146편이라는 초유의 논문발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회원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교수평가에서 논문발표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2003년에 츠쿠바대학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에는 본 학회 회원 70여명 참가하여 활발한 국제학술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했으며, ADC에서 IDC로의 전환 기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다. 6대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02 5월25일 연세대학교에서 봄학술대회 개최. 146편 발표
  11월16일 상명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93편 발표
  2월,5월,8월,11월<디자인학연구>논문집 간행
- 03. 5월24일 경성대학교에서 봄학술대회. 135편 발표
  11월22일 경희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61편 발표
  2월,5월,8월,11월<디자인학연구> 논문집 간행

이 기간 중에는 대학생학술논문상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5) 제7대 이순종 회장(2004-)

제7대 회장에는 서울대학교 이순종교수가 선출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취임과 동시에 동계워크샵을 전주대학에서 개최하여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5월,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된 봄학술대회는 18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또다시 발표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논문의 투고양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재발족 10주년기념학술대회에는 국내학술발표 이외에도 일본, 중국, 미국, 영국디자인학회의 대표들이 초청되어 뜻있는 대회가 될 전망이며 지속적인 학회의 발전이 주목된다.

4. 맺는말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은 지난 한 세기동안 주로 유럽에서 발상되어 아메리카에서 계승, 발전되어왔지만 21세기를 맞이하여 디자인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동양사상과 철학의 기초위에 동서양이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학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국디자인학회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대적 소명을 띄고 창립되었으며, 1994년 재발족 이래 국내 유일의 통합적 디자인학술단체로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한. 중. 일 3개국 디자인학회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디자인학회(ASSD)를 창립한 이래 6회에 걸쳐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향후 이는 구미지역의 대표적 디자인학술단체인 Design Research Society(DRS)와의 교류를 통해 범세계적 디자인학술단체인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를 태동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학회 재발족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계획은 상당히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05년 타이완에서 개최예정인 제7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7th ADC 2005)부터는 명실상부한 국제디자인대회(IDC)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본 학회는 국내외적으로 탄탄한 기반위에서 인류 문화생활 전반에 기여하기위한 소프트사이언스 적 학문탐구에 진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고에서는 여러 여건상 학회의 태동과 재발족 과정의 역사적 사실위주의 기록에만 그쳤다. 그러나 금후의 과제로서는 학회의 철학, 사상, 가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 준비위원회 회의록, 1993-1994
- 디자인학연구회 회의록,1988-1993
- 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디자인학연구> 영인본 전10권, 한국디자인학회, 2002.4
- 한국디자인학회 회원명부, 한국디자인학회, 2001,